동부대우전자 매각 위기…고용불안 확산

중남미·중동 침체에 실적 악화…투자자, 경영권 공매

광주공장 폐쇄설까지…협력업체 포함 7000여명 위기

전방 등 방직업계의 공장 폐쇄가 현실화 되면서 지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가전업체의 큰 축인 동부대우전자가 매각 위기에 내몰리면서 광주공장 폐쇄설까지 불거져 직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의 재무적투자자(FI)가 '동반매각권' 옵션을 행사, 제3자 공개매각을 추진하면서 광주공장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 산하에는 현재 생산직 430여명과 협력(도급)업체를 포함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동부그룹은 2013년 (주)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광주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49%를 투자한 FI들과 2018년 기업공개 및 2016년 이후 순자산 1800억원 이상 유지 등을 내용으로한 재무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주력시장인 중남미와 중동 지역의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급등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인수 당시 FI와 맺었던 약정을 지키지 못하자 FI들은 동부대우전자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동반매각권 옵션을 행사하고 공개입찰을 위한 투자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부그룹은 기존 FI들을 새로운 투자자로 교체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에 있는 국영 가전업체인 오크마와 협상을 벌여 투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사드 문제와 해외 M&A 규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도시가 투자에 난색을 보여 난관에 부딛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동부대우전자 노동조합은 17일 제8차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향후 다가올 고용불안에 대비 행동 절차에 돌입했다. 인수업체가 광주공장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쟁의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노조 측은 "직원들은 워크아웃 기간 13년과 동부대우전자 5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을 분담해 왔지만 또 다시 새 주인을 맞아야 할 운명에 처했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금호타이어 노조와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동부그룹 차원의 자금 조달을 통한 자체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각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부대우전자 측은 지역에서 제기된 투자 유치 실패와 공장 폐쇄에 관한 우려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오크마와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 협상과 공장 폐쇄 등에 대한 지역의 우려는 잘 알고 있으나 현재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오크마와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서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세탁기와 냉장고를 생산 중이며 생산제품의 80~9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한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 매각 반대와 저지를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각계 대책위 구성해 해외매각 저지"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부실 매각→해외 매각 반대 입장 선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노조)는 16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를 위해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부실매각 중단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금호타이어노조의 이같은 태도는 그동안 해외매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부실 매각 방지에 뒀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어서 향후 노조 대응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범위한 지역 대책위를 구성해 부실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해외매각에 따른 제2의 쌍용차 먹튀 방지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이 끝내 거부했다"며 "노조와의 협의마저 거부한 만큼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금호타이어 부실매각을 저지하겠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부실매각을 중단하고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해외매각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쌍용차와 같은 먹튀 방지 등 부실매각 반대에 중점을 두고 채권단 등에 협상을 요구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가 이같은 태도에서 회사 측이나 지역사회에서 촉구하고 있는 해외매각 반대 자체에 발을 맞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자회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사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노조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노조 허용대 대표지회장은 "박삼구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박 회장이 참여하려면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수출 '장밋빛 하반기'

131곳 설문…43.5% "호전"

광주지역 수출기업 절반가량은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본부세관이 최근 지역 수출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보다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43.5%(57개사)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 20.6%(27개사)보다 많았다.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35.9%(47개사)였다.

하반기 수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신규 오더 또는 거래처 확보'(32.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수출 증가'(23.3%), '수출국 경기회복' (18.6%), '신제품 출시 등 비가격 경쟁력 개선'(18.6%) 등으로 답했다.

하반기 통관 여건이 가장 까다로울 시장으로는 중국(39.6%)이 1순위로 꼽혔고 미국(21.4%), 동남아(13.0%), EU(8.4%)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수출 호전이 기대되는 시장으로는 동남아시아(2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중국(16.2%), 미국·일본(14.2%), EU(7.4%)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지속 여부'(21.0%)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강화, 원화가치 상승'(15.1%), '원자재 가격 불안정'(14.3%)등을 꼽았다.

하반기 주력수출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으로는 중국(44.0%)이 가장 많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48.26 (+14.04)
- ↑ 금리 (국고채 3년) 1.82% (+0.02)
- ↑ 코스닥 634.91 (+5.54)
- ↑ 환율 (USD) 1141.50원 (+1.80)

더 강해진 '스팅어 드림 에디션'

기아차, 스팅어 5천대 계약 기념 출시…엔진 기능 등 향상

기아자동차는 스포츠 세단 '스팅어' 계약 건수 5000건 돌파를 기념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성능과 디자인 요소를 모아 '스팅어 드림' 모델을 17일 출시했다.

스팅어 드림 모델은 기존 스팅어 2.0 터보·2.2 디젤 '플래티넘' 모델에 ▲브렘보 브레이크 ▲기계식 차동기어 제한장치(M-LSD) ▲후드 가니시 ▲리얼 알루미늄 콘솔부 어퍼커버 ▲메탈 인서트 필름 도어가니쉬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스팅어 구매 고객의 약 45%가 3.3 터보 GT 모델을 선택했고, 2.0 터보 모델 구매자 중 60% 이상이 브렘보 브레이크와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이 포함된 '퍼포먼스 패키지'를 추가했다. 이런 고객의 수요를 고려, 3.3 터보 GT 모델과 퍼포먼스 패키지 요소를 '스팅어 드림' 모델에 집약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가격은 스팅어 드림 2.0 터보가 3910만원, 2.2 디젤이 4160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보험금 과소지급 보험사에 과징금 7배

금융위 10월19일부터 시행…약관 위반 징벌 강화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20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